

“한국대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박경호
현대건설주식회사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전무

한국대댐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한국대댐회가 있기까지 헌신을 다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現 김진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께 현대건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대댐회는 1972년 국제대댐회(ICOLD)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창립된 이래 국가 경제와 건설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수자원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현대건설은 한국대댐회의 창립총회에 故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대댐회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댐의 건설에 이바지해 오며, 그 과정에서 한국대댐회와의 깊은 기술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댐 건설 기술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의 건설 산업은 전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댐 건설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다공종의 건설공사인 댐 건설의 불황은 고용창출 효과와 각종 제반 산업의 발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댐 건설은 현재 국내의 댐 건설

적지의 감소와 개발에 따른 환경적 부작용 등으로 더욱 위축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댐은 우리의 생활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력 부족 문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발전시설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의 증가 및 가용 수자원 부족은 기존 댐의 재개발을 비롯한 보다 유연한 수자원 관리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물 산업의 규모를 급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물 전문 리서치 기관인 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현재 400조원 규모에서 2025년에는 1,00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즉, 기후 변화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해외에서 다가오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태국,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자원의 1%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개발 도상국들의 수자원 개발에 대한 니즈는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발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건설업체들은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과거 말레이시아 트렝가누댐, 파키스탄 타르벨라댐, 미얀마 나웅자트댐 등을 건설하였으며, 현재도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서 댐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물산업은 건설업을 넘어 대규모 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을 비롯한 국내 건설사들이 댐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대댐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 물관리시스템과 홍수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서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기업과 한국대댐회의 상호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원천 기술의 개발과 연관 산업의 육성에도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블루골드 시대의 맹주로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제 지난 40여년간 한국대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낸 성과를 바탕으로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물 시장을 선도하며 다가올 40년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대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대댐회의 4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대댐회와 회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